

OERI-Shorts

OERIs-2024-6호
March 2024

#예멘 후티, #홍해사태, #에너지시장, #해운시장동향

홍해 사태 이후 국제사회 반응

- '23.11. 예멘의 후티 반군이 홍해에서 민간 선박을 공격하면서 본격화
- 후티반군이 장악하고있는 '바브엘만데브 해협은 전략적 요충지이며 세계 3대 원유수송로
- 홍해 사태 여파로 공급망 혼란과 함께 에너지 가격 및 물류 비용 증가
-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종전 또는 휴전 시 홍해 사태 해소 기대



1 | 홍해 사태 배경

- 2023년 10월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기습 공격한 이후 이에 대한 보복으로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에 연이은 공습을 감행함에 따라 현재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분쟁 지속
- 이에 따라 예멘 후티 반군은 하마스를 지지하는 차원에서 바브엘만데브 해협을 장악하고 2023년 11월 19일 이스라엘 소유 차량 운반용 선박 Galaxy Leader선 나포를 시작으로 홍해를 지나는 모든 선박을 공격 중

2 에너지 및 해운시장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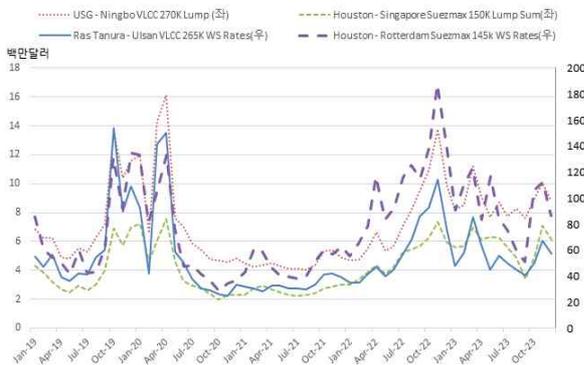
[에너지] 후티 반군의 공격을 피하기 위한 글로벌 선사들의 항로 우회로 높아진 물류비용이 에너지 국제가격 상승에 기여

- 글로벌 물동량의 15%를 담당하고 있는 홍해 지역의 물류 상황이 악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에너지 국제가격 변동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전망
- 최근 원유와 천연가스의 국제가격 상승추세는 공급 부족이 아닌 물류비용 증가에 기인한 것이며 글로벌, 특히 유럽 국가들의 경기 침체로 에너지 수요 감소가 예상되어 코로나19 팬데믹 수준의 가격 급등은 없을 전망
- 유럽 국가들은 이미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러시아의 에너지 수출 제재로 인한 에너지 공급 부족 위기감으로 에너지 자원의 전략적 비축률을 상당 부분 개선(LNG 비축률 평균 78%)해 왔으며, 장기화된 경기침체로 에너지 수요도 감소 추세
- 또한 비OPEC 산유국인 미국·캐나다가 원유 증산 기조를 이어가고 있고 겨울 난방 수요 감소 등 계절적 수요 요인이 사라져 현재 공급이 수요를 추월하고 있는 상태
- 홍해 사태는 에너지 국제가격 변동보다 물류시장에 더 큰 영향을 주고 있으며, 현재의 가격 급등세는 타이밍의 문제로 spot 가격이 높은 편이나 향후 가격 재조정 가능성이 높은 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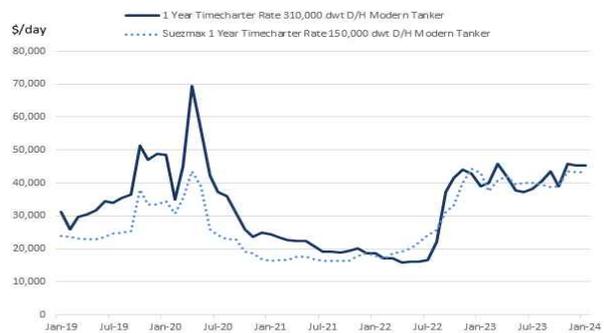
[해운시장] 유조선과 컨테이너선 시장은 홍해 사태 발생 이후 운임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었으나 선박 공급 증가 및 경기 침체 우려로 해운 수요가 감소하며 중장기적으로 해상 운임의 안정화가 전망

- **[유조선]** '23년 말~'24년 초 유조선 운임이 수에즈 운하 통과 노선에서 급등했으나 이는 계절적 수요에 따른 단기현상으로, 글로벌 경기 침체로 인한 에너지 수요 감소 및 향후 운임 상승 전망이 시장에 선반영되어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운임의 추가 상승여력은 없을 전망

유조선 운임 추이



유조선 용선료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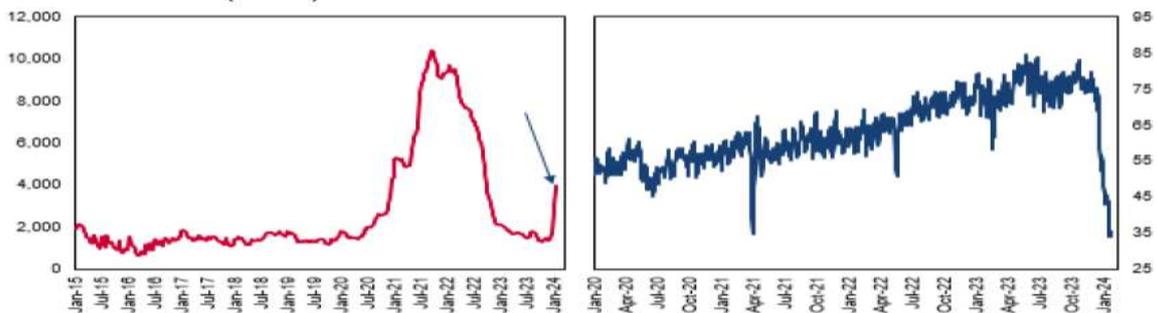


자료 : Clarkson

- **중동-아시아 노선의 경우 홍해를 거치지 않고 운항하고 있으며, 후티 반군도 에너지 상선의 공격은 자제하고 있어 홍해 사태로 인한 유조선 시장 변화는 미미**
 - 아시아(특히 중국) 국가로의 에너지 수출은 홍해를 경유하지 않는 오만 두크姆 항 노선을 이용 중이며, 최대 수입국인 중국의 경기회복 둔화로 에너지 수요 회복에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
 - 다만, 석유 저장용 선박 수요가 여전하고 선박 노후화에 따른 해체 선박이 증가하는 추세로 유조선 시황은 양호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
- * 미국 외교전문지 Foreign Policy는 후티 반군이 대형 유조선이나 에너지 생산 시설 공격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이며, 이는 이란이 과거 사우디아라비아와 에너지 관련 시설에 대한 공격을 자제키로 합의한 바 있고 에너지 시장 교란으로 인한 국제사회의 비난을 피하기 위해서라고 분석

- **[컨테이너선]** 2023년 컨테이너선의 해운 수요는 세계 경기 둔화의 영향으로 부진하였으나 선박 증가율은 높은 수준으로 홍해 사태로 인한 12월 중 반등에도 불구하고 중장기적으로 운임 하락이 전망
- 2024년 초 선박 공급 부족과 홍해 사태로 인한 컨테이너선 운임의 단기급등이 있었으나 높은 유희선박 비율, 신조선 인도 본격화로 신규 선박이 시장에 대량 공급(연초 대비 8.6%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운임은 하향 조정될 것으로 전망

Shipping Costs and Disruptions on the Rise Following Houthi Attacks Drewry World Container Index, USD/40ft (LHC) & Bab Al Mandeb Strait



Source: Drewry, Port Watch, BM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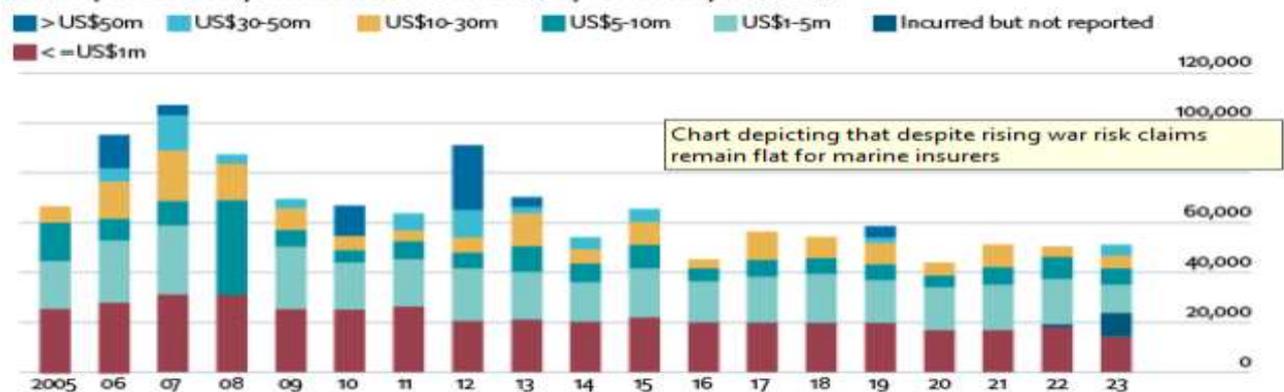
- 다만, 컨테이너선이 후티 반군의 집중 공격대상인 만큼 글로벌 선사들의 항로 우회로 인한 운송비용 증가가 인플레이션 심화를 유발하고 경기 침체를 장기화시킬 전망

3 | 관련 업계 반응(자동차 및 선박 보험사)

- **[자동차]** 부품 조달 및 생산 차질로 글로벌 제조업체들의 운영 리스크가 증가했으며, 운송비 상승으로 공급 감소 및 가격 인상이 가시화될 전망
 - Tesla(미국), Volvo(스웨덴), Suzuki(일본) 등 자동차 회사들의 유럽 생산 단지내 공장 가동이 임시 중단 후 재개
 - i) Tesla : '24년 1.29.~2.11 독일 베를린 인근 공장 가동 중단, ii) Volvo : '24년 1월 셋째 주부터 벨기에 공장 가동 임시 중단, iii) Suzuki : 동 주간에 헝가리 공장에서 일부 생산공정 중단
 - Volkswagen(독일)은 항로 우회에 따른 배송기일 연장, 운임 및 제반 비용 증가로 생산단가가 인상되어 이로 인한 최종 소비재 가격 인상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으며, Stellantis(네덜란드)의 경우 필수 제조 부품들을 확보하기 위해 탄소 배출량이 많고 고비용이 드는 항공 운송을 선택하고 있다고 애로사항을 호소
 - 자동차 업체들이 생산비용 증가분을 고객들에게 전가하면서 자동차 '표시 가격(sticker price)'이 상승할 전망
 - 물류대란이 장기화되면 더 많은 자동차 업체들이 공급망 위기를 타파하기 위해 대체 공급처 및 대체 운송경로 발굴 등의 대안을 마련할 것으로 예상
- **[선박 보험사]** 선박 보험회사들이 홍해 항로를 경유하는 선박에 대해 보험료 인상과 특약 추가, 수수료 인상 등 '전쟁 리스크'를 감안한 전반적인 보험 약관 수정을 검토 중

- 영국 최대 보험사인 The Joint War Committee(JWC)는 ‘high risk zone’의 정의를 확장하고 보험금 지급 손실률을 커버하기 위해 **보험 프리미엄을 인상하기로 결정**
 - 홍해 ‘war risk premium’은 ‘23년 10월 0.07%에서 12월 말에는 0.5~0.7%로 인상되었으며, 후티 반군의 직접적인 공격대상인 이스라엘 소유 선박 한정 으로 이의 10배 수준의 수수료를 부과하기로 결정
 - 보험사들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우크라이나 선박의 경우 2.5%~3% 까지 프리미엄 부과 중
 - 우회 항로를 선택한 선박의 경우 통항에 통상 10~15일이 추가로 소요 되어 기간 연장과 지연에 따른 보험 비용도 증가
 - International Union on Marine Insurance에 따르면 2022년 ‘hull and cargo 보험 프리미엄 수익 증대가 총 보험 수수료 수입액의 8% 상승을 견인했다고 발표
 - 글로벌 재보험사인 Swiss Re는 분쟁 및 전쟁 위험 증가로 보험료를 뿐 아니라 보험 적용대상과 범위, 한도를 포함한 전반적인 보험 및 재보험 규정 과 약관에 대한 재검토를 실시(2023년 Marsh와 Lloyd’s London사는 보험 청구액 한도를 조정)할 계획
- ⇒ 다만 보험업계의 이러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분쟁으로 인한 **보험금 청구액 증가율은 아직 미미한 수준**

(claim per vessel by intervals of claim cost, by accident year, U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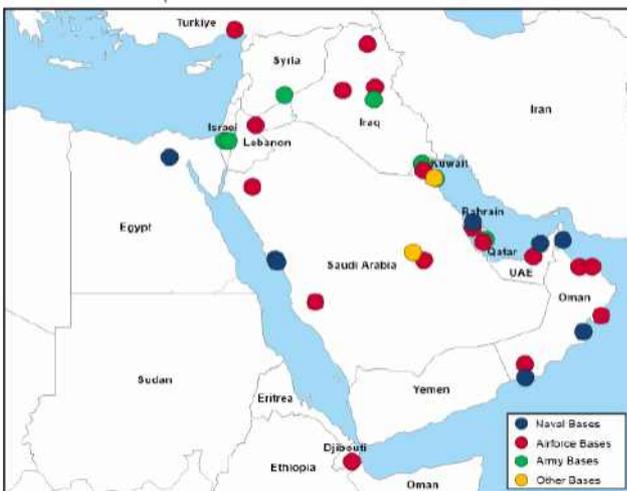


Source: The Nordic Association of Marine Insurers.

4 국제사회 반응

- **(MENA : 중동북아프리카) 2024년 상반기까지 홍해 사태 여파로 경제적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인플레이션으로 이미 국내정세가 불안한 북아프리카 국가들은 경제 상태가 더욱 악화될 것으로 전망**
 - 중동 내에서는 이집트, 요르단, 이스라엘이 가장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연합군 세력과 이란을 중심으로 한 '저항의 축' 세력이 대립하는 긴장관계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
 - * '저항의 축'은 이란을 중심으로 형성된 반(反) 이스라엘·반서방 동맹체로 하마스,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 시리아의 바샤르 알아사드 정권, 이라크 내 친이란 시아파 민병대, 예멘 후티 반군 등이 포함
 - 중동 내 미군 주둔비용의 상승, 팔레스타인 난민 수용 문제 등으로 중동 국가들의 재무부담이 가중될것으로 예상되며, '23년부터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란의 외교관계 복원으로 회복 일로에 있었던 GCC 국가들과 이란 간 관계 개선에도 제동이 걸릴 것으로 예상

중동 내 미군 주둔지



Source: American Security Project, BMI

이란이 지원하는 국가



-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중재자 : 이집트 & 카타르]** 이스라엘 가자지구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이집트와 이란의 무슬림 형제단(하마스)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해 온 카타르는 중동 지역내 갈등 상황이 발생하고 긴장 관계가 고조될때마다 중재자의 역할을 수행해 온 경험

[이집트] 대외 건전성지표 하락과 높은 인플레이션으로 사회불만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중동 내 정세 불안으로 외국인투자 유출이 가속화

- 이집트의 주요 외화수입원인 수에즈 운하는 '22년 통행료 인상과 엔데믹 효과로 2022/23회계연도 중 94억 달러(이집트 재정수지의 10%)의 수익을 기록했으나, 홍해 사태 발발 이후 수익지표가 크게 하락
 - Suez Canal Authority는 홍해 사태 이후 수에즈 운하를 통과하는 선박 수가 2024년 1월 첫 2주 동안 전년 동기 777척에서 544척으로 감소해 통행량이 40% 급감했으며, 1월 한달 동안 총수익도 4.3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40~50% 급감했다고 발표
- 외화유동성 확보를 위해 '22.12월 IMF 확대금융 승인(30억 달러)을 받으며 점진적인 변동환율제 전환을 시도했던 이집트 정부는 홍해 사태 등으로 중동정세가 불안해 지며 수에즈 운하 수입 감소, 관광업 부진, 외국인 투자 유출이 이어지며 IMF로부터의 승인 한도 증액을 협상 중
 - IMF 권고사항에 대한 이행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 1년 가까이 달러당 30.8에 고정시켜놓았던 이집트 파운드화 환율을 '24.3.6자로 달러당 49.5 로 기습 인상
- '23.12월 엘시시 대통령이 3연임을 확정지으며 친서방적 외교정책 고수의지를 확고히 하고 있으나, 미국과 연합국에 대한 공개적인 지지를 표명시 이슬람 공동체로부터 적폐세력으로 몰릴 가능성이 있어 홍해사태에 대한 언급에는 신중한 입장
- Rafah(가자 지구와 이집트 국경 지대) 지역 내 가자 지구 팔레스타인 난민 수용 문제에는 공개적으로 반대 의사를 밝혔으며, 이스라엘의 Rafah 공격 시에만 반격할 것이라고 선언

[카타르] 원유 및 천연가스 부국인 카타르는 러시아가 유럽의 경제제재 조치에 대한 보복으로 천연가스 공급을 억제하자 반사이익으로 對유럽 수출이 급증했으며 실용주의 중립 외교노선을 추구하고 중동 지역에서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수행 중

- '22년부터 유럽 경기침체로 인한 수요 감소로 對유럽 수출 비중은 동년 2사분기 27%에서 '23년 말 16%로 이미 감소 추세
 - 카타르는 유럽 대신 에너지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아시아 개발도상국으로의 수출비중을 점차 확대할 계획(홍해와는 별개의 수출 항로 이용)
- 2024년 1월 초 카타르는 Al Udeid aribase기지의 미군 주둔 연장에 합의했으나, 후티 반군을 공격하는 베이스 캠프로 데 극도로 신중한 입장을 표명
 - 카타르는 예멘의 배후 세력인 이란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해 왔으며, 서방 국가에 대한 지지는 이슬람 공동체 내에서 보복과 저항의 대상이 될 것을 우려해 홍해 사태에 대한 공식적인 발언을 자제하는 중
 - 2024년 1월 13일 연합군의 후티 반군 군사시설 공격에 반발해 QatarEnergy사가 홍해를 경유하는 LNG 수송선의 운항을 중단했다 재개한 경험
- **[아시아]** 미국, 유럽으로의 수출에는 타격이 있을 것으로 보이나, 중국 의존도(서남 아시아의 경우는 인도의존도)가 높은 수입 부문은 비교적 영향을 덜 받을 것으로 전망
 - 수출 주도 경제구조의 서남아시아(인도네시아, 태국, 말레이시아)는 경제적 타격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그 외 농업 중심 산업구조를 가진 아시아 국가들의 경우에는 물류비용 증가로 인한 공급망 혼란이 인플레이션을 가속화시킬 것으로 전망

- 아시아로 향하는 컨테이너선의 물동량은 후티 반군 공습 이후 85%나 감소(teu 기준)한 바 있으며 차선택으로 거론되는 항공 운임의 경우 방글라데시 Chittagong항에서 유럽까지 1kg당 3.5달러로 1kg 당 30센트 이하인 해상 운임과는 큰 차이
- (한국) 홍해 봉쇄 장기화로 한국에서 유럽으로 가는 해상 물류 운송비가 한달새 70% 넘게 급등하여 사상 최대 상승폭을 기록
- 관세청에 따르면 2024년 1월 유럽으로 가는 해상 수출 컨테이너의 운송비는 40피트짜리 컨테이너 한 대당 평균 434만 5,000원으로 ('23.12 252만 6,000원) 코로나 19여파로 운송비가 비쌌던 2023년과 비교해도 5.7% 상승
- 반면 유럽에서 들어오는 해상 수입 운송비는 아시아 국가들의 경기 위축과 경제성장세 둔화에 따른 수요 감소로 하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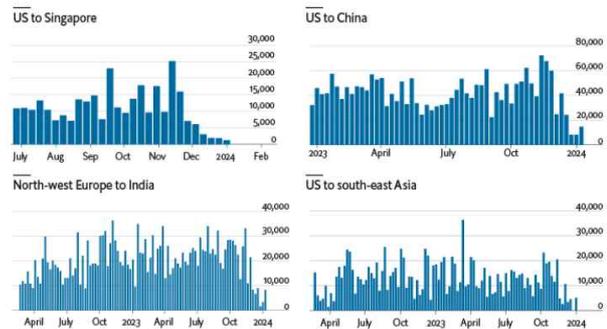
아시아 선박들의 항해 일수

Origin	Destination	After Houthi Attack	Before Houthi Attack
Northwest Europe	India, Bangladesh and Sri Lanka	40	35.6
	China, Hong Kong and Taiwan	55	42
	South Korea and Japan	44	37.3
	Malaysia and Singapore	56	32

Sources: Econdb.com, EU.

홍해사태 이후 아시아 국가들의 대외거래 추이

Bilateral trade to Asian markets has dropped significantly since the Houthi attacks (container trade; 20-foot equivalent uni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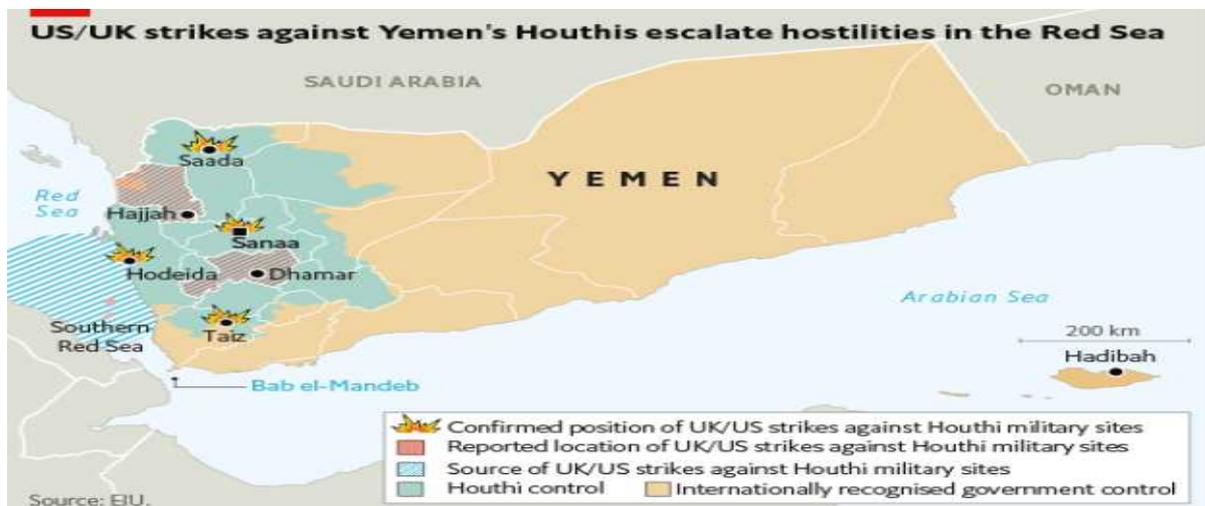


□ [미국 : 트럼프 vs 바이든]

- 2024년 11월 치러질 대선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현직 조 바이든 대통령의 양자 대결구도가 될 것으로 예상
- (트럼프) 트럼프의 “MAGA: Make America Great Again”는 미국 최우선주의로 주요 정책 중 하나가 반이민 정책이며, 테러에 대해서는 강경 대응이 원칙
 - 2015년 11월 '이슬람 국가(IS)'가 주동자로 지목된 프랑스 파리 테러(사망자 130명, 부상자 400명)에 대해 '무슬림의 입국 제한(Shut down)' 등 강력한 대응을 시사하며 지지율을 반등시킨 경험
 - 트럼프 행정부는 과거 이슬람 7개 국가*국민에 대한 입국 제한을 명령한 적이 있으며, 2020년 2월 29일 '도하 협정'을 체결하고 미국의 아프간 철수를 감행하는 등 중동의 안보보다는 자국 우선 보호주의 고수
 - * 이라크, 이란, 시리아, 소말리아, 수단, 리비아, 그리고 예멘
- (바이든) 현재 후티 반군을 “specially designated global terrorist(SDGT)”, “foreign terrorist organisation(FTO)”로 지정한 전 행정부의 결정을 일부 백지화하는 등 인권과 중동 평화구상에 집중하는 경향
 - 예멘 인구의 3분의 2가 원조가 필요한 극빈층임을 감안해 인도적 목적으로 내린 결정이나, 홍해 사태로 인해 제재를 복구하라는 압박에 직면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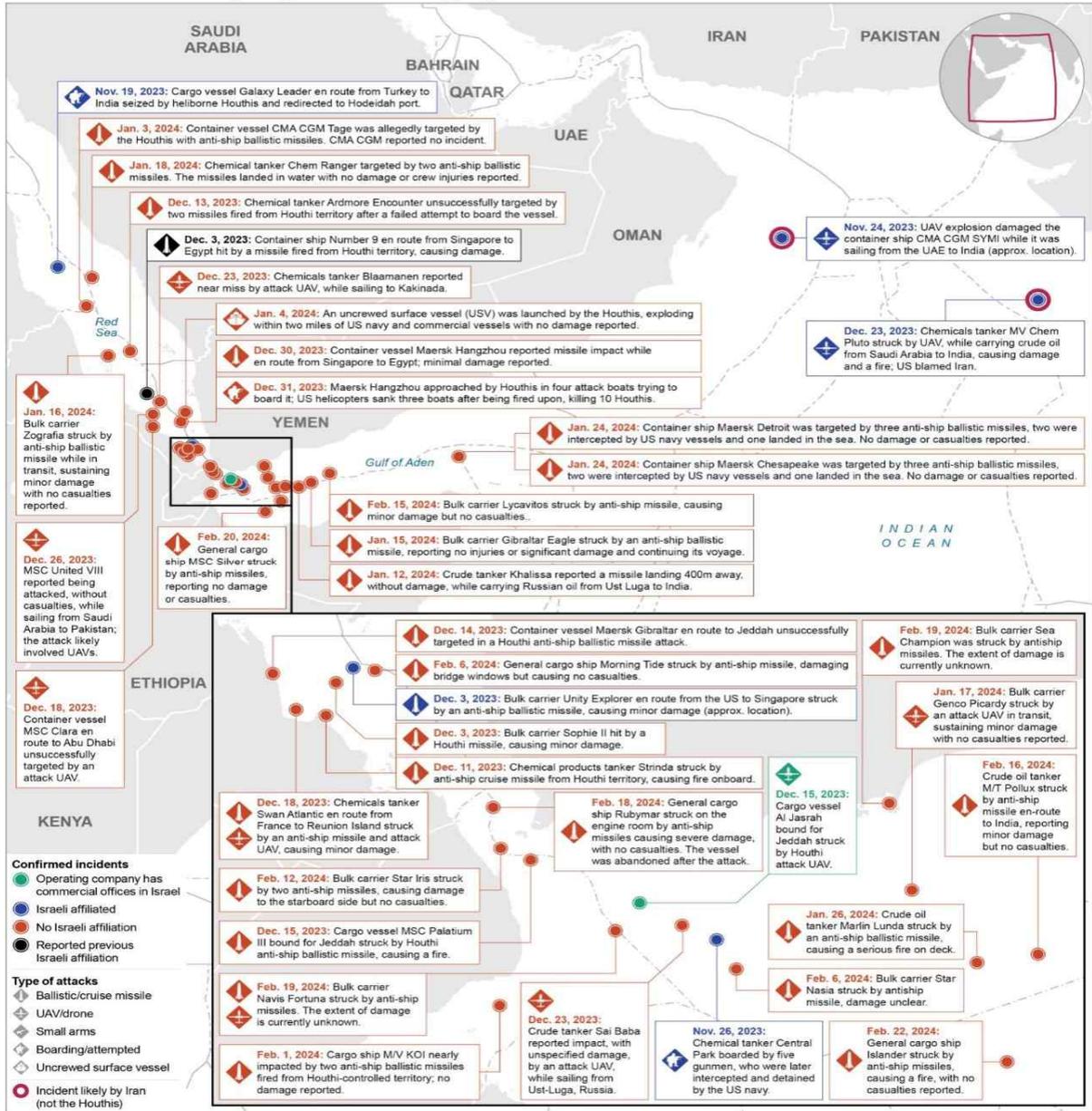
5 | 결론(향후 전망)

- [현재 _ 다국적 연합 vs 후티 반군] 2024.1.12 미국과 영국 군대는 홍해에서 후티 반군 거점 군사시설에 대한 합동 공격을 개시했으며 사실상 2023년 12월부터 군사작전을 펼쳐오고 있으나, 2023년 11월 중순부터 2024년 1월 11일까지 후티 반군이 27번의 공격을 감행한 것을 보면 큰 효과는 없다는 평가



- 후티 반군은 예멘 정부와의 내전에서 획득한 무기와 이란, 북한, 중국의 지원을 받고 무장하고 있으며 이스라엘 선박 뿐 아니라 교전 중인 영국, 미국, 협력국인 호주, 바레인, 캐나다, 네덜란드 선박까지 공격
- 후티 반군의 기술과 정보수집 능력은 후진적인 수준으로, 이로 인해 2023년 12월 18일에는 노르웨이 탱커 Swan Atlantic을 미사일 공격하는 등 공격 실수가 빈번
- '24년 3월 6일에는 그리스 화물선 '트루 컨피던스'호 미사일 공격으로 첫 민간인 사망자가 발생하며 국제사회의 비난을 받고 있으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다국적군의 압박 수위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

Confirmed incidents targeting commercial shipping in the context of the Israel-Hamas war



Data compiled Feb. 26, 2024. Source: S&P Global Market Intelligence: I-2012080.

[전망-Key player 들의 입장 : 미국, 이란 및 기타 중동국가] 후티 반군의 배후에 있는 이란과 다국적 연합군을 주도하고 있는 미국의 입장과 태도 변화가 전쟁 향방의 핵심

- 미국과 이란이 확전을 원하지 않고 있어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 종전이나 휴전 상태로 전개될 경우 후티 반군의 공격도 명분을 잃고 소멸될 전망
-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바레인(GCC 국가들 중 유일하게 '번영의 수호자' 다국적군에 소속)과 후티 반군 및 배후국 이란간의 미묘한 대립 분위기가 지속
 - 대부분의 GCC 국가들은 자국내에 미군기지*를 두고 있으며, 추후 후티 반군의 타겟이 될 가능성도 존재
- * Prince Sultan Air base(사우디아라비아), Camp Arifjan(쿠웨이트), Al Dhafra 공군기지(UAE), US Fifth Fleets's base(바레인 Manama항) 등
- **[이란] 후티 반군을 지원하는 이란**은 자국내 경제상황 악화와 미국 제재로 경제적 고립을 경험하고 있는 데다 2023년 3월 외교관계를 복원한 사우디아라비아 및 동맹국들과의 경제교류에도 집중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어, 전면전에 나서거나 후티 반군에 대한 추가 지원을 제공할 가능성은 희박
 - 다만, 확전 가능성이 낮음에도 이란 해군과 혁명수비대가 홍해에 병력을 주둔시키고 있고 연합군과의 충돌도 잦아져 지정학적 위험성은 여전히 상존

- **[미국] 물류 대란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심화, 민간인 공격에 대한 국제사회의 규탄이 지속되며 미국 주도 다국적 연합군의 '번영의 수호자 작전'(Operation Prosperity Guardian)* 수위 강화**

* 미국을 비롯한 10개국이 2023년 12월 홍해의 안보를 위해 창설한 다국적 안보 구상 : 영국, 바레인, 캐나다, 프랑스, 이탈리아, 네덜란드, 노르웨이, 세이셸, 스페인

- 2024.2월 미국은 가자 지구의 가능한 한 빠른 일시적인 휴전과 이스라엘군의 Rafah 공격 반대를 촉구하는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 결의안 초안을 마련하며 중재 시도
- 미국은 그간 휴전이라는 단어 사용을 자제해 왔으나 전쟁에 대한 피로감, 대선 캠페인 활동, 내수 경기 회복 등의 과제가 우선순위로 부상

◆ 당행 해외경제연구소(Overseas Economic Research Institute, OERI)는 직원들이 관심 가질만한 이슈를 'OERI-Shorts'라는 이름으로 간략하게 정리합니다.

◆ 문의사항이 있거나 업무하시면서 더 알고 싶으셨던 주제가 있으시면, 연구소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1

홍해 사태 브리핑

- '23.12.12. 예멘 후티 반군, Maersk 선박을 시작으로 Hapag Lloyd, CMACGM, MSC 등 글로벌 컨테이너선 피습
 - 후티 반군은 '23년 11월 19일 홍해 남부 인도로 향하던 차량 운반선 Galaxy Leader(이스라엘 소유) 화물선 나포를 시작으로 홍해를 경유하는 모든 선박으로 공격 대상 확대
 - 공격위험에 노출된 노선은 아시아 ↔ 유럽/미 동부, 유럽 ↔ 중동/인도 등 Bob Al-Mandab 해협 통과 선박
- 2023.12.20. 수에즈 운하 이용 제한
 - 상위 9개 컨테이너 선사*가 안전 확보 시까지 수에즈 운하 통행을 중단하고 희망봉 우회 발표
 - * MSC, Maersk, CMACGM, HapagLloyd, Evergreen, HMM, OOCL, Yangming, Zim
- '23.12.31. 미군과 후티 반군 첫 교전
 - 후티 고속정 3척 침몰, 10명의 사망자 발생
- '24.1월 번영의 수호자 작전(Operation Prosperity Guardian) 개시
 - Bab Al-Mandab 해협을 통과하는 화물선에 대한 보호 목적의 미국 주도 다국적 연합군 작전 개시
 - '24.1.12. 미-영 연합군, 후티 반군 주요 군사시설에 대한 공습 강행
 - 1월 현재 CMACGM, COSCO 일부 선박이 운항을 재개했으나 주요 선사들은 안전 확보전까지 희망봉 우회 항로를 이용할 계획

- '24.2.4. 미국, 요르단에서 친이란 민병대 공격으로 미군 3명이 사망한 데 대한 보복 공격 천명
 -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미군 사망에 대해 엄중히 대처할 것이라고 공표
 -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인에 대한 공격에는 강력한 군사 대응으로 보복할 것임을 밝혔으나 배후인 이란에 대해선 공개적인 언급을 회피
 - '24.2.1. 예멘 내 후티 반군 시설 36곳을 공격, 2일에는 시리아와 이라크 내 이란 혁명수비대 및 관련 민병대를 공습(7개 지역 85곳 이상)
 - '24.2.17. 예멘 후티 반군 통제 지역에서 5차례에 걸쳐 방어 차원의 공습
 - * 후티 반군의 이동식 대함 순항미사일 3기, 무인 잠수정(UUV) 1척, 무인수상정(USV) 1척
- '24.3.6. 예멘 아덴만에서 그리스 화물선 '트루 컨피던스'호가 후티 공격을 받아 선원 3명이 사망하고 4명이 중태, 민간인이 사망한 최초 사례